

南道文化와 住居

신남수 (전남대 교수)

1. 서론

주거란 그 시원이 보호처(shelter)이건 우주의 중심이건 간에 사람들의 삶의 경험적 축적이고 사회적 지식이며, 한 집단을 대표하는 생활방식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삶의 지속성과 안전성이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이다.

그리고 건축 환경은 분명히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이면서 우리 삶을 표현하고 정의하기도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건축활동이란 문화적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문화적 발전과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은 어느 문화권에서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흔히들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권역을 문화권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위계적으로 그 구조를 이야기 하고 있다.

물론 문화란 삶의 방식에 관련되어 그 내용에 있어서 종합적이며, 형식에 있어서 복합적이고 시간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이 변화 발전하며, 공간적으로 상호 교류가 이루어져서 하위문화권은 상위문화권에 비해 그 영역을 분명히 하기 힘들다. 특히 도시나 건축과 같이 장시간에 걸쳐 건설·이용·유지되고 그 내용도 융통성이 커서 많은 인간의 삶을 포용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오늘의 남도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한국의 문화권의 하위체제로 이를 이해해야 하며,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남도의 자연, 남도의 인성과 가치, 사회 역사적 특성을 수용하면서 변용된 것으로 일차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에 영향을 주는 제 요소들과 표현된 내용들 사이의 일대일의 대응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를 찾아내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표현된 형상의 미묘한 차이의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복합 요소들이 복합적 상호관계 속에서 복합적으로 표현된 형상들의 관계를 찾는 작업은 복잡계 중에서 복잡계의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다분히 문화인류학적, 유추적 해석을 병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남도의 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본적 바탕 속에서 이미 진행된 연구들과 자료를 통해 남도 문화의 특성 속에서 주거를 이해하며, 이들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이해하여 앞으로 남도주거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통시적 고찰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공시적 고찰을 통한 비교도 병행한다.

그러나 주거는 인간생활의 고가 기본재이고 장기 소비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에 있어서도 그 사회 전체와 산업기술 등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문화의 변화에 대해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적 교류에 의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서서히 고착되어간다.

따라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주거의 차이를 구분해내는 일은 간단한 일은 아니며,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상지역이 상대적으로 좁으며 비교적 동질문화권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2. 우리나라의 문화와 남도 문화

흔히들 남도라는 말을 통용하고 있는데 이 말이 통용되고 있다는 말은 남도라고 불리는 대상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구분되는 성질이 존재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따라서 남도라는 대상에 남도 사람의 생활이 있고 그들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학습되고 전승하는 구조가 있다면 남도문화라는 말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또는 우리나라 문화와 구분되는 특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나, 전술한 바와 같이 남도의 문화를 우리나라 문화의 하위문화(subculture)로 보고 우리나라의 문화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남도의 자연적·역사적·사회적 조건에 의해 발전 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밝히는 것은 오늘 이야기의 목적도 아니고, 또 이야기 거리도 너무 많아서 발표자의 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그 문제는 우리의 공유된 의식으로 대체하도록 하며, 오늘의 논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건축의 특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자연과의 조화 : 풍수, 지형지물 이용과의 관계
- (2) 인간적 척도 : 칸, scale, 규모와 높이
- (3) 건축구조 형식의 특징 - 목구조, 배흘림기둥, 민흘림기둥, 안쏠림, 우주솟음
 - 기단
 - 처마 및 지붕곡선
- (4) 공간구성 기법 - 대칭적 비대칭성
 - 개방과 폐쇄
 - 공간의 상호관입
 - 외부공간의 구성
- (5) 연역적 규범 : 풍수지리, 음양오행, 위계적 공간구성
- (6) 건축조형의 특징 : 大巧小拙

남도의 건축과 주거문화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기본적인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남도의 자연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남도인의 인성, 그리고 사상과 예술 등의 요인으로 특유의 상황에 의해 변용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요인들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2.1 남도의 자연적 환경

흔히들 쓰는 남도란 지경학적으로 한반도의 남부를 전부 포괄하기 보다는 서남부를 지칭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명확한 경계는 논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어떤 이는 전라도와 금강 이남지역을, 어떤 이는 충청북도 제천 의림지 이남을, 또 어떤 이는 김제 벽골제 남측을 남도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의 전라도를 쉽게 남도로 구분하는 이도 있다. 또 민속음악에서는 흔히들 시나위권을 지칭하기도 하며, 사회학자들은 모정(茅亭)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나누기도 한다.

사실 문화의 분포를 분명히 경계 짓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며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나 문화적 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인 구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편의상 위의 정의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행정구역상의 전라남·북도를 포함하는 개념인 전라도를 남도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물론 행정구역을 문화권으로 구분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생활권을 무시하고 단순히 지형에 의해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행정구역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 거의 고정되었으며, 구역을 나누는 지형이 크개는 문화적 교류와도 관계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구분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도의 지형은 남동부는 소맥산맥과 그 지맥에 의해 산악이 많고, 북쪽은 차령산맥으로 구획되는 한반도의 서남부 지방이며, 노령산맥으로 전라남도과 북도가 구분되어 진다.

전체적으로는 평야가 많고 영산강, 섬진강, 보성강, 탐진강 등 큰 하천을 가지고 있으며 농사짓기에 비옥한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업생산력이 높다.

또 남서해안은 굴곡이 심하여 항만이 발달되었고 외국 특히 중국과 바다를 통한 교통이 편리했다. 한반도의 서북해안에 비해서는 대륙문화의 유입이 늦었으나 중국남조의 영향을 받아 개방적이고 활동적이었다.

그리고 금, 은, 납석, 고령토, 규석, 명반석 등 지하자원도 많아 도자기와 옥돌공예의 원류가 되었으며, 타 지역에 비해서 목장승보다는 석장승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또한 영산강, 보성강, 탐진강 유역에서 다수의 선사시대 유적이 발견되고 있으며 B.C1050년에 버를 경작한 유물들이 나오기도 했다.

남도는 한반도에서는 가장 온난한 기후대에 속하고 년 평균기온 13℃, 년강수량 1100-1300mm의 온난 다습한 기후이며, 북서계절풍에 개방되어 있다. 여름우계와 겨울건계를 가진 대륙성 기후로 인해 사람들은 적응력과 끈질긴 성격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긴 겨울을 지내기 위한 김치, 젓갈 등 발효저장기술이 발달하여 미향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지형 지질적 요인과 기후적 요인으로 인해 벼농사, 고구마, 차 등의 농업이 일찍

부터 발달했으며, 문익점의 면화(1363년)는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서 첫 제배에 성공했으나 남도에서 가장 많이 경작되었다.

이와 같은 자연 조건 속에서 남도인은 낙천적이고 쾌활하며, 인정이 많고 감정이 섬세하고 풍부한 인품을 갖게 되었으며, 손놀림이 섬세하고 유연한 무용이나 예술, 서사시보다는 서정시나 판소리 등이 이곳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2.2 남도의 사회 경제적 상황

옳건 그르건 간에 남도를 소외된 지역이라고 하고 그 근원을 백제의 멸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지역감정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연유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이 이야기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정치적 소외가 우리의 삶에 한으로 남아 1500년 가까이 내려온다는 것은 주장의 근거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남도는 농사짓기에 적합한 넓은 평야와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일찍부터 벼농사를 지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알다시피 벼농사는 많은 노동력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필요하며 협동작업이 필수적인 농업이다. 따라서 남도에서는 이를 위한 집락구조와 사회조직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었다.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것이 농경에 필요한 수리시설, 그리고 원활한 협동작업을 위한 두레나 향약조직일 것이다. 그리고 농사철의 휴식과 자치적 집회, 마을의 대소사의 의견을 집약하는 모정(우산각, 시정)의 존재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집락별 정주 의식과 애향심이 고취되고 상부상조의 미덕이 계승되었을 것이다. 모정의 기능과 현대적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유독 남도에만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어쩌든 간에 남도 문화의 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남도의 비옥한 땅은 우리나라의 식량 보급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남도인의 한을 낳기도 했다. 평안감사에 못지않은 전라감사라고 했듯이 중앙정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각종 차별정책과 각종 명목의 수탈은 남도의 자본축적을 불가능하게 했으며, 흉년이라도 들게 되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도 많았고 각종 민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으나, 이와 같은 한을 예술로 승화시켜서 표출한 경우가 훨씬 많아서 예향이라고 잘 알려져 있다.

또 남도의 문화교류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중앙정계에서 유배된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조선시대 유배자 700인 중 129명이 남도에 유배되었으며, 그들과 이 지방의 사림간에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은 족히 예상되는 일이다.

이 지방에서는 남도인 특유의 풍부한 감정과 섬세한 표현, 선천적, 예술적 재질 그리고 산자수명한 자연 속에서 다듬어진 자연관과 세계관으로 농익은 토착문화와 서울의 앞선 문화와의 교류로 그들의 문화적 폭을 넓혔던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실학의 대가 다산 정약용과 초의선사의 관계일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남도는 외침에 의한 병화의 피해가 가장 적었으니 이는 향토애

로 뭉친 남도인의 자주정신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각종 민속 문화의 흔적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2.3 남도의 사상과 예술

남도문화의 특성 중의 하나로 포용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성으로 사상적으로 매우 다채로운 역사를 가진 지방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른 문화권과 같이 달리 남도에서도 shamanism에 뿌리를 둔 토착 문화가 외래문화와 사상을 맞아 다양하게 전개되고 새롭게 발전되었다.

삼국시대 우리나라의 불교는 통일신라와 고려왕조의 비호를 받아서 왕성하게 발전되었으며, 열반종, 계율종, 법성종, 화엄종, 법상종 등 5교 중 2교가 호남에서 개종했다. 통일신라 후대에 선종의 유행은 특히 남도에서 그 위세를 발휘했으니 선종 9본산 중 3산이 남도에 위치하게 된다. 고려조 보조국사 지눌은 송광사에서 선종과 교종을 통합한 조계종을 개종하였으니 남도의 포용력을 다시 한번 보는 듯 하다.

유교의 전래도 삼국시대부터 볼 수 있으나 주자학의 본격적 도입은 16세기 중종시대로 볼 수 있으며, 남도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많은 선비들의 연구가 있었다. 특히 고봉 기대승과 퇴계 이황과의 사단칠정논쟁은 특히 유명하여 이기 이원론과 이기 일원론의 담론이었다. 이와 같은 주기론과 주리론은 노사 기정진과 간재 전우 등에 의해 변증법적 통합을 이루니 이는 또한 남도의 포용성이 다시 한번 발휘된 것이다.

그러나 남도의 사림들은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안빈낙도를 즐기며 학문에만 정진했으니 명문거족은 없으나 자유로운 사상이 꽃피울 수 있었다. 또 남도의 선비들은 국난에 맞아 항상 앞장서서 구국의 대열에 참여하였으니 의향이라 불릴만 하다. 충무공의 난중일기에 苦無湖南, 是無國家라고 한 것은 이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남도의 예술도 자유로운 발상과 힘든 노동, 탐관오리의 착취의 한을 분노가 아닌 예술로 승화시켜 완성된 것으로, 인생과 자연의 관조로 사람들의 깊은 감정을 애조로 표현함으로써 오늘날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들 남도예술의 특성을 서민성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소박하고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모두에게 공감을 주면서도 전아성을 잃지 않는 예술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은 남도인의 기질인 것이다. 바로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의 경지에 다다랐다는 의미이다. 이는 자연과 인생을 관조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연과 본질적으로 동일시 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며, 생활과 예술이 일체가 되어 농익은 표현이 가능하였고 미숙하고 치졸한 듯 하면서도 접할수록 깊은 맛 감칠맛을 느끼게 한다.

남도의 건축이 그렇고 문학이 그러하며 남도의 회화가 그러하다. 이것들은 생활 속에서 태어나고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예술이며, 예술 속에서 삶을 다시 느껴

보고 있다. 이는 남도인의 낙천성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서민성에 뿌리 한 남도 예술은 그 뿌리가 깊고 자생력과 포용력이 강해서 끈질기고 새로운 것을 가미하면서 그 폭을 넓히고 있다. 판소리가 더듬을 통해 끊임없이 변용하듯이…。 이는 남도인의 포용성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남도예술의 또 다른 특성은 유연성과 유려한 선, 여백의 미라고 할 수 있다. 남도 자기의 선이 그러하며, 자유롭고 부드러운 회화의 선이 그러하며,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는 남도창이 그러하다.

그래서 남도인들은 화려하고 세밀한 북종화보다는 부드러운 선을 중심으로 대관적 구도를 중시하는 남종화를 좋아하며 세밀한 정치미 보다는 큰 틀을 중시하여 투박하고 소박하지만 뜯어볼수록 깊은 맛을 갖게 한다. 이것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관조하며 자기화함으로써 가능한 표현법이다.

흔히들 남도의 예술을 風前細流의 멋이라고 일컫는 것도 여기에 근거하며 산자수명한 남도의 자연도 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신라말, 고려초 풍수지리의 대가인 도선의 출생지가 광양이라는 것도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남도예술의 특성 중 짙고 넘어가야 할 것은 개방성과 융통성이다. 이것은 남도예술이 생명력을 갖고 발전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삶과 문화의 변화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그들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하였다. 엄격한 규칙성과 법칙을 통한 정형적이고 엄격한 형식 미학이 아니라 미학의 법칙성을 유지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상황에 정합시키는 내용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이와 같은 특성은 낙천적이고 쾌활하며, 감정이 섬세하고 풍부한 남도인의 특징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징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예술의 특성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예술을 이해하는 데는 남도예술의 이해를 필수로 해야 한다는 말로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3. 남도의 주거

우리나라의 건축을 연구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주거건축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 건축의 대부분이 목조 가구식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불에 타거나 부식되어 유구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다른 건축물과는 달리 주거건축은 기록도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이야기의 전개는 분석 가능한 시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전통 주택은 15세기 후반 이후 지어진 것들이 라고 볼 수 있다.

그 시대 이후의 주택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상류층 주택(이하 반가라고 부르기로 한다)과 일반 서민주택(이하 민가라고 부르기로 한다)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위치와 규모의 차이뿐 만 아니라 사용되는 재료와 기술, 공간의 성격과 분화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반가에서는 주택과 대지의 규모제한이 비교적 느슨해지고 신분제도도 형식화되

며, 어느 정도 초기 시장경제체제와 비슷해진 17세기 중반과 그 이전은 주택 형식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반면 민가에서는 이런 변화가 거의 없었으니 이는 경제적 차이가 주택의 분화를 실질적으로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주택에 크게 변화를 준 것은 한말의 서양식 주택의 도입과 일제의 일본식 주택의 도입이다. 일제시기 주택은 극히 한정된 부분에서만 영향을 미쳤지만 도시계획을 통해서 대지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으로 오늘날의 격자형 가로형식을 갖게 되었고 특정 지역에서 도시형 한옥이라는 양식을 낳게 했다. 그러나 남도에서는 전주 등의 일부 지구만을 제외하고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 주거형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5.16 이후 목조 가구식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나면서부터 소위 양식주거형식이 적극적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여기서는 조선조 때의 주거를 입지나 배치, 외부공간의 구성, 평면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3.1 조선시대의 반가 주택

16세기까지의 조선조 주택은 안정된 신분 사회, 율법과 함께 통치이념으로 정주학이 고착된 시기였으며, 엄격한 신분적 사회체제와 내외구분이 이루어 졌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반가는 주로 사대부층, 향반층의 주택이 대부분이며, 양반층간의 계층성이 거의 없으므로 지역구분 없이 대부분 口字形이 사대부의 주거에서 강하게 표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각종 사화 등의 갈등과 중국이 왕조교체기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과의 접촉은 부진했었다.

엄격한 가부장제, 장자 상속, 가묘제가 확립되며 婦德이 강요되었다. 그 결과 이 시기에 동족 부락이 형성된 것으로 여겨지며, 확대 가족형을 유지하게 되었다.

위치는 풍수지리 사상에 영향을 받았으며, 비단 위치뿐 만 아니라 건물의 좌향, 규모, 대문의 위치 및 개기 등도 풍수의 영향 하에 있었다.

평면의 형태는 모두가 口字形이거나 口字을 기초로 부분적으로 변형한 것이며 방형의 안마당을 구성하고 있다.

마당은 분화되어 안마당, 사랑마당, 행랑마당, 작업(농업/가사)마당으로 구성되는데 어떤 경우는 각 마당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분화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안마당과 사랑마당만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안마당과 사랑마당은 물리적 형태로 분명히 구분되나 작업마당, 행랑마당, 분간 마당 등은 공간적으로 구분은 약하나 기능적으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다(이 형식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어느 경우든 안마당과 사랑마당은 분명히 구분된다.

평면형식은 (그림1)과 같다. 남도에서는 이 시기에 해당되는 주택은 한 채만 남아 있어서 비교하기는 불가능하다. 건축은 그 가구 형식으로 보아 전문적 장인이 담당했을 것이다. 이 시대의 주택은 주인의 사회적 지위를 표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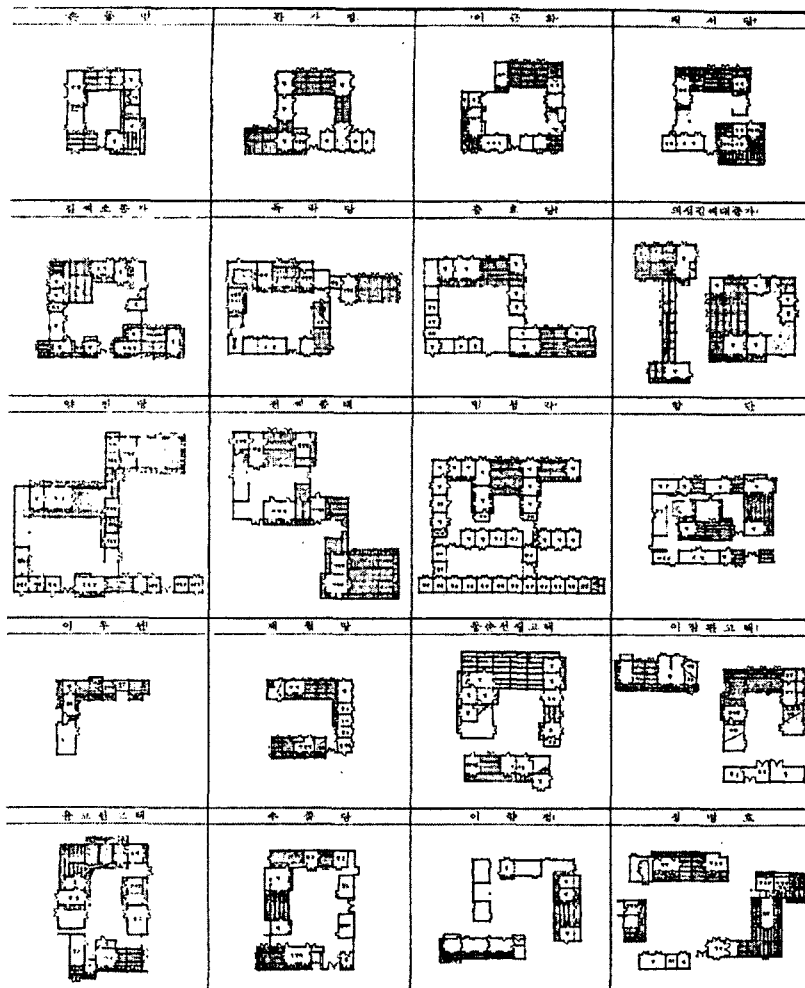


그림 1 사대부층 주거 (15세기 후반-1700)

이와 같은 평면구성은 조선조 후기 영남 북부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조 후기에는 실학의 발달과 청나라와 교역을 통한 서양문물의 유입으로 신재료와 기술의 도입, 實事求是정신으로 합리적이고 기능주의적 사고가 싹튼 시기였다. 사회 경제적으로 부농과 부상 등 자본축적이 이루어 졌으며, 조선초의 신분제가 동요, 와해되어가고 있었고 법제적 제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남향주택이 일반화 되었고 경제력의 향상으로 주택건설이 활발했으며, 읍성이 발달했다.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지어진 반가는 그 이전 주거의 정연한 口자형과 대칭적 구성을 파괴하면서 점차 평면 구성이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조선조 후기에서는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도의 주거에선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도의 반촌의 입지는 산록에 위치하며 좌향은 남향인 경우가 많으나 풍수이론과 후고전저의 일반적 형태로 서향이나 북향까지도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타지역보다 넓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배치를 보이고 있으며, 넓은 작업마당을 가진다.

동의 배치는 안채와 사랑채는 별동으로 구성되고 부속채나 담장 등을 이용해 비교적 정연한 안마당을 구성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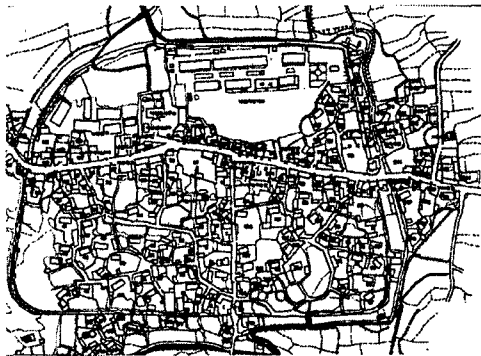


그림 3.1 전남 승주 낙안 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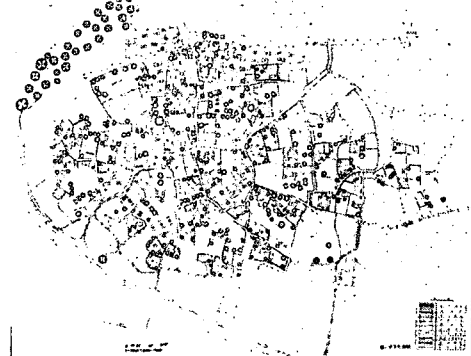


그림 2.2 경북 안동 하회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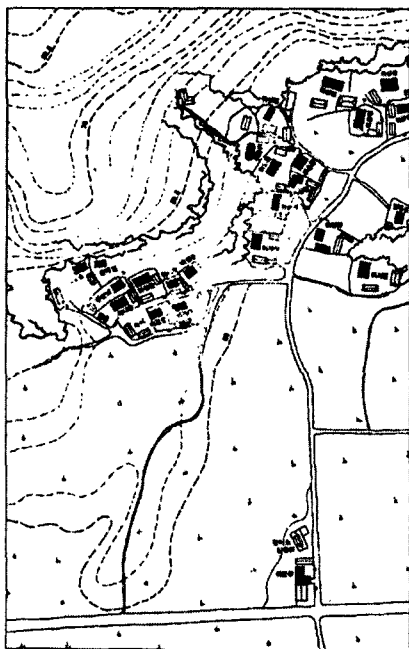


그림 2.3 장흥 방촌마을 구조

남도의 반가주택과 영남 남부의 반가주택은 그 구성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마당의 구성에 있어 남도의 반가주택이 폐쇄감이 훨씬 덜하며 비교적 자유로운 배치와 보다 넓은 마당을 구성하고 있다. 안채의 구성도 비슷하였으나 마루의 구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남도의 마루방은 완전한 실로 분화되어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영남의 남부 반가에서는 완전한 실로 분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홑집이었다. 또 남도의 주택은 툇마루가 발달해 있어서 독립된 실들을 연결하고 있으며, 뒤 툇마루도 발달하여 공간의 상호관입으로 친근감 있는 공간을 형성한다.

전체적으로 안채는 다양한 수장공간을 가지고 있어 영남 남부에 비해 공간이 분화 되어 훨씬 복잡한 평면을 보이며 안채의 면적도 더 넓다. 또한 공간의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격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연과 주위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적응하고 있다.

또 남도의 반가에서는 우리나라 조경의 특색중 하나인 방지(方池)를 가진 주택도 다수 보이며(예. 구례 운조루, 보성 강골) 깊은 처마 내기와 툇마루의 관입된 공간은 깊은 맛을 보이고 있다.

3.2 남도의 민가

소유자의 사회적 지위와 그 시대의 사회적 가치에 크게 영향을 받는 반가에 비해 서민들의 생활을 담는 민가는 소박한 삶의 미학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사용되는 기술과 재료가 토속적이고 지방의 반숙련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아 반가에 비해 그 변화가 크지 않다. 따라서 민가를 통해 서민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가장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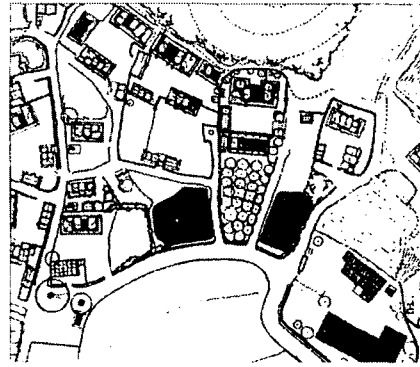


그림 3 전남 보성 강골마을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의 민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들이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가의 유형에 대한 구분이다. 위치와 평면과의 관계로 민가의 유형을 구분한 것으로 대표적인 예는 (표-1)과 같다.

표-1 우리나라 민가의 분류

연구자	분류	비고
岩槻善之(1924)	北鮮型, 京城型, 中鮮型, 西鮮型, 南鮮型, 기타	전라남도에 해당하는 남鮮型(岩槻善之), 南部型(김정기), 남부지방형(주남철) 등은 부엌, 안방, 대청, 작은 방이 놓인 4칸형 평면 유형으로 일률적인 제시가 되어 왔다.
野村孝文(1938)	濟州道型, 北鮮型, 一般型, 都會型	
이영택(1965)	中部型, 南北型, 關西型, 關北型	
김정기(1970)	北部型, 西部型, 서울型, 中部型, 南部型, 濟州道型	
장보웅(1974)	산지형, 평야형, 도서형	
주남철(1976)	함경도지방형, 중부지방형, 서울지방형, 평안도지방형, 남부지방형, 제주도지방형	

위치와 분류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명칭이 구분되고 있으나 남부 지방형이라는 일관된 형식이 존재하고 그 특성을 일자형 평면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또 조성기는 각 지방의 민가의 평면들이 분화 발전을 추정하여 (그림 5)과 같이 요약하였다. 어느 것이나 일자형 홑집에서 분화 발전한 것으로 보았다.

아래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남도의 민가는 일자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산지형, 평야형, 도서형으로 세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마루방(대청)의 기능화와 분화, 툇마루의 발달 등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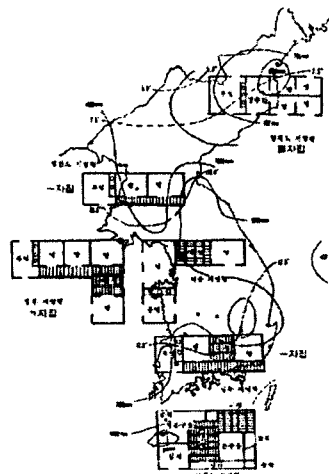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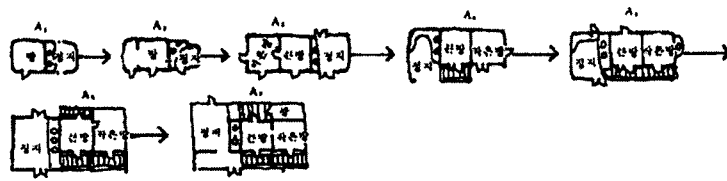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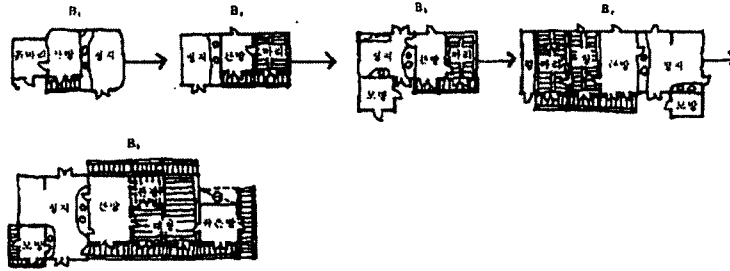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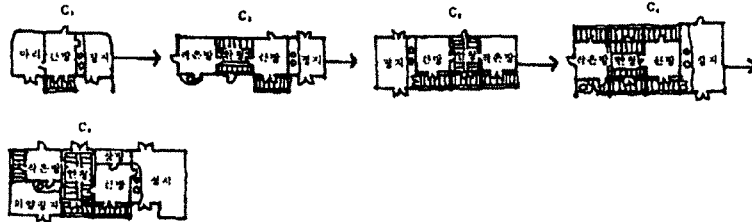
그림 4 주남철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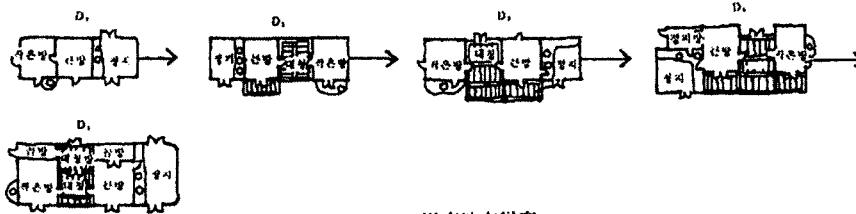
5 - 1. 오막살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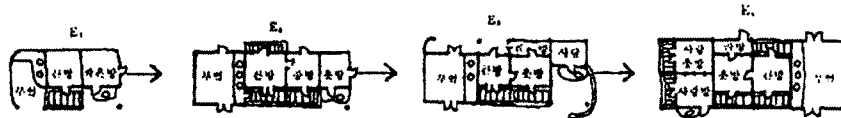
5 - 2. 湖南地方民家



5 - 3. 南東海岸地方民家



5 - 4. 嶺南地方民家



5 - 5. 湖西地方民家

그림 5 南部地方地域別 民家發展推定圖

그러나 민가는 반가에 비해 그 입지가 자유롭지 못하여 평면이 변형이 많으며 배치에 있어서 체계적이라기 보다는 필요에 의해 결정되었다.

마을의 구조는 산록에 입지하여 배산임수의 원칙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으며 크기는 수지형 구조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loop 구조가 발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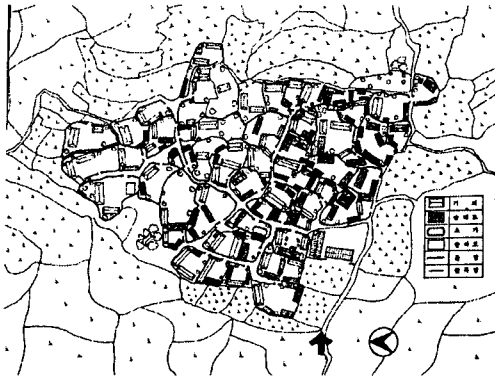


그림 6-1. 경남 하동 양동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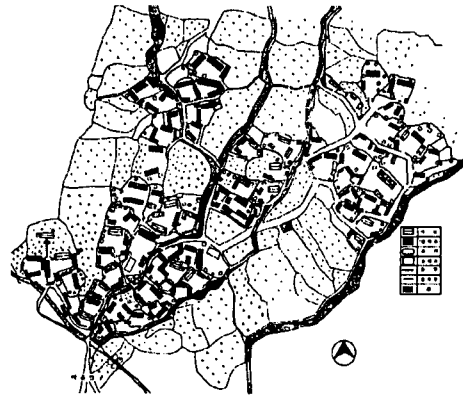


그림 6-2. 전남 구례 상사마을

이는 마을 내에서 다양한 교류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가와는 달리 남도의 민가 마당은 분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작업마당의 성격이 강하고 좌향은 남향 선호의 경향은 보이지만 마을구조, 대지형태와 지형들에 의해 적당히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지규모가 적어서 공동 작업마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동간배치도 병렬형이나 L자형을 근간으로 하나 주변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부농층의 경우 반가에 준하는 배치와 마당의 분화도 보인다.

타 지방의 민가에 비해 대지면적이나 안채의 면적은 큰 편이며 평야지대에서는 홀지보다 곽집형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도서지방은 까작집형을 보이고 있다. 까작집은 모방이라는 작은방이 평면의 끝 부역의 앞쪽에 부엌과 평행하게 돌출된 방을 가진 형태의 주택이다.

주변의 토속재료와 토속기술 심지어 비전문적인 소비자가 직접 건설에 참여하여 단순한 축조법으로 구축하고 간명하게 마감하여 오히려 깊은 맛이 나게 한다. 비가 많아 지붕이 급하고 타지방에 비해 처마높이와 토방의 높이도 낮은 축이면서도 많은 개구부를 가지고 있고, 배산임수를 우선시하여 개방적이다.

마루는 필수적이며, 마루와 마당의 상호관입과 긴 처마 내민 길이는 공간을 아늑하고 친근하게 구성한다.

전반적으로 남도의 민가는 자연의 적응성이 높으며 상황에 따라 규범에 연연하지 않고 융통성 있는 구성을 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개방적이고 친근한 느낌을 갖도록 구성되어 있다.

3.3 남도의 주택

남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남도인의 주거는 남도의 산자수명하여 부드러운 지형과 포근한 인성을 지닌 남도의 문화를 반영한다. 이를 통해 남도인의 가치와 같이 사는 지혜를 중시하며 자연과의 조화로 삶을 관조하고 현실의 한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개방성 : 좌향보다 배산임수의 전망을 중시했으며, 비교적 넓게 터를 잡는다.
 - : 안채가 넓으며 마루기능이 강화되어 있다.
 - : 일자형 평면을 근간으로 하며 개구부가 넓다.
 - : 수지마을 구성을 기간으로 loop의 형성
 - : 안채와 사랑채는 별동으로 구성하여 부속채를 통해 유현성 마당의 기능과 상호관계를 통해 열린 듯 닫히고 닫힌 듯 열린 공간을 구성
- 서민성 : 단순한 가구법, 소박한 마감.
 - : 토속재료의 활용
- 포용성 : 지형을 최대한 살려 공간을 구성
 - : 조경과 융합
 - : 처마 높이가 낮으며 토방도 낮음.

이와 같은 남도주거의 특성들은 교묘히 녹아서 남도 특유의 주거양식을 형성하고 주거문화를 예술로 발전시켜 왔다.

4. 근현대의 남도주거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한 남도의 주거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여 오다가 급격한 정치적 사회적 변혁기를 맞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선교사 등을 통한 서양문화이고 일제 식민통치를 통한 일본 문화의 강요이다.

그러나 남도의 주거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외부문화를 자기화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또 반일 반외세의 관점도 크게 영향도 있었을 것이며 산업 구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물론 도시에서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은 경우도 있으나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택지정리 일 것이며, 이에 따라 부분적으로 도시형 한옥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상가에서는 hybrid 형식도 존재하기도 했으나 남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자형 평면을 유지하는 기본형태를 유지하였다.

도시에서는 마당은 형식화되고 배치도 접근로를 중심으로 형식화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에도 이어져 왔다.

한국전쟁 이후 특히 60년대 후반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로 도시주택은 많은 변모를 가져왔으나, 남도에서는 일자형 평면을 그대로 유지해왔다.

주택 공급 구조에서 소규모 부동산 개발업자 소위 집장사의 탄생을 보이게 되나, 평면 형식은 일자형을 유지했으며 실의 임대를 위해 마당을 중심으로 문간채의 형식이 유행하게 된다. 초기에는 모임지부에서 후기에는 팔작지붕(소위 방풍집)으로 변모되면서 도시형 한옥의 출현과 집단적 주택공급이 시작되었다.

그러는 동안 외국인투자본에 의한 주택개발사업(소위 IDA)이 부분적으로 출현했으나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도시 주거에 크게 영향을 준 것은 60년대 후반 도시방화와 산림녹화의 이유로 목조주택 축조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면서 목구조에서 조적식 구조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구공탄으로 대표되는 연료의 변화, 입식구조의 도입과 구조재료의 변화는 주택을 크게 변화케 하였으며 새로운 생활방식은 소위 양식주택을 남도에 출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건축생산 방식의 변화를 읽게 된다. 소위 집장사 조직을 통해서 자가생산, 주문생산에서 상품생산의 형태로 변화되었으며, 이를 Vernacular Architecture의 발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생활과 생산의 분리라고 볼 수 있다.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조적구조에 의한 소위 양식주택의 공급은 일반화 되었으며 생산업자의 차별화 전략에 따른 이태리식이니 불란서식이니 하는 유행도 있었으나 이 때의 변화는 주택의 중요한 결정에 주부의 역할이 크게 증대했다.

또 이 시기에는 생활이 중심은 거실이 아닌 안방에 있었으며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방을 크게 해야만 했다.

소규모 주택 공급업자에 의한 주택공급은 7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대형 건설업자에 의한 표준화된 공동주택의 공급시기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점차 고층화 거대화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근래에 와서는 소비의 고급화 등에 의해 고층고밀주거를 기반으로 참여형의 주택 공급 방법도 시도되고 있으며 외부공간에 관심도 증대되고 있으나, 고층 고밀 공동주택의 비인간적 규모, 기계적 미학관에 많은 비판이 가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남도 주택은 생활과 생산이 협동하고 건축주 건축가 생산업자가 참여하며 도시의 Context를 고려한 공간의 창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자연과의 관계가 더욱 강화된 지속가능한 주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산업화 도시화의 속도가 우리에게 문화적 여유를 가질 수 없게 하였으며, 시장의 힘이 문화의 힘보다 훨씬 우선하기도 했고, 급속한 서구문화의 유입은 이를 자기화 할 수 있는 기회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남의 뒤만 쫓아다닌 결과일 것이다.

이제 우리들의 것을 다듬어서 우리의 정서를 우리의 삶과 일치시켜서 세계화할 노력을 할 때이다. 이러기 위해서 남도의 가치와 삶의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정체성과 정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흔히들 남도를 예향, 의향, 미향이라고 한다. 이를 곱씹어 보면 남도의 예술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삶과 생활속의 아름다움이고 생활과 문화가 일체화된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의 자긍심과 주체적 안목으로 반만년 동안 이어온 공동체 의식과 정주의식을 통해 매력있고 살맛나는 공간을 창출하여 친근하고 희망이 있는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1. 강영환 : 울산 울주지역 민가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5.1.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84.12
2. 국립 목포대학 박물관 : 장흥군의 문화유적 : 1989.
3. 김후진 : 전남지방 민가의 지역별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 조선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2002.
4. 무애건축연구실 : 경북 금능 농촌 주거 : 1988
5. 문병룡 : 마을의 정주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 전남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1989.
6. 문화재 관리국 : 전통 가옥 조사 보고서 : 1983.12.
7. 문화재 연구소 : 민가조사 보고서 : 1994
8. 박만규 외 : 호남 전통 문화론 : 전남대학교 출판부
9. 윤원태 : 한국의 전통초가 : 재원 1998
10. 이동언 : 근접분리관계로 본 한국 남부 지방 민가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85.10.
11. 임영배 외 : 전남지방 전통 건축의 특성 : 안당 임영배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총 1998.
12. 전라남도 : 남서해 도서지역의 전통가옥 · 마을 : 1989.
13. 조정식 : 한국남부지방 전통주거의 공간구조에 관한 비교연구
14. 최 일 : 조선중기 이후 남부지방 중상류 주거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9.